붕어빵 뒤집기 말씀

(딤후2:1~13)

3.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8.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붕어빵 뒤집기 말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붕어빵 뒤집기 말씀'
여러분 새삼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아직까지도 이 참담한 사고의 상황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빠진 이런 정말 극단적으로 비참한 사건의 의미를 누가 알겠습니까?
선박 전문가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해안 경비대원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바다 전문가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만이 그 의미를 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배후에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메시지가 전달되는가는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근데 이 사고에서 아주 일부분 중 아주 귀중하고 정말 핵심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어마어마하게 악한 괴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세월호에서 배에 이상이 생겨 바다에 기울어지면서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방송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 압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뒤에 조사를 하니까 무슨 뭐 탈출하라고 얘기를 선장이 누구에게 했는데 전해지지 않았다는 둥 말았다는 둥 많은 말이 있지만 다 잘라 버리고, 어쨌든 배 안에 갇혀 있는 아이들과 승객들이 방송으로 정식으로 들은 얘기는, '배 안에 가만히 계세요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짧은 말입니까?
한 10초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0초의 말씀이 다 죽인 겁니다.
제가 교회를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영락교회에 있을 때 본당에 2000명 가까운 사람이 들어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부목사님들이 문 앞에 나와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담임목사님이 와서 인사를 하실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2000 명이 빠져나가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빠져나가잖아요, 급한 마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400여명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 방송으로 말씀만 전달됐으면, '여러분 침착하게 배에서 이제부터 빠져나가야 됩니다, 구명정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염려마시고 순서대로 이 배로부터 탈출하십시오!'라는 이 짧은 10초의 말씀만 제대로 전달 됐으면, 한 명도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세요 도움이 됩니다, 해 놓고는 선원들이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할 자가 없습니다, 빠져나가라는 말씀을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무식한 얘기 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당 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에요.
그리고 구원의 과정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이 세상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 바다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까?
아담 이후에 인간 사회라고 하는 세월호, 인간 사회가 하나의 배에요, 근데 원래 타락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인간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하면, 이 세상 바다에 떠 있지만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냥 세상 바다에 떠 있는 배로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사회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사도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파손한 자니라'
뭐가 파손한 거라고요?
인간 사회가 세상을 담아버립니다,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뒤집혀 버린 거지요, 인간 사회라고 하는 세월호가 이 세상 바다에 뒤집혀 가지고 빠져 들어가게 되면서, 각 인간들이 자기 마음 안으로 이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비유 안에서 말하자면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구명정이에요, 구명정.
모든 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들이, 구명정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빠져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라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소원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부흥을 열망하라, 예배당 건축을 꿈꿔라 날마다 꿈꾸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그리면 언젠가는 그런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원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꿈과 비전으로 갖고 정진하는 모든 상황이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은, 이 빠져있음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빠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고 하지요, 애인에게 빠졌다, 또 사업에 빠졌다, 골프에 빠졌다 취미에 빠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돈에 빠졌다, 돈 돈 하고 사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상황을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면, 다른 거 좋아할 힘이 없는데.
좋아할 마음도, 좋아할 뜻도, 좋아할 힘도 없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빠지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빠져 있는데.
가정 문제에 빠져 있고, 이 땅 위에서 이루고 싶은 많은 꿈과 비전에 빠져 있고, 예배당 건축에 빠져 있고, 숫자 부흥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빠지게 됩니까?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UP SIDE DOWN.
거꾸로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던 마음이, 하늘을 향해 땅으로 향해서, 하여간 마음은 향하면 빨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걸 채우기 위해서 향하는 것을 끌어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UP SIDE DOWN 전복돼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빨아들이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면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서 접하는 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빨아들이려고 그러고 세상에 빠지려고 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날마다 뒤집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붕어빵 뒤집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밑에 불이 있어요, 밑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밑면만 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집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붕어빵 뒤집기 달인도 나왔었습니다.
정확하게 2,3초,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상태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탁탁탁 뒤집어 갑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탁탁탁탁탁.
이런 것처럼 뒤집기에 달인이 돼야 돼요.
뒤집기에 달인이 됨으로써,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

나님께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께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떻게 이 붕어빵 뒤집기식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8절에도,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다시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바로 뒤집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함께 죽습니다.
그러면 함께 사는데, 이때 살아날 때는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버리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죽을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방향으로 마음이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붕어빵 뒤집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말씀을 통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날마다 붕어빵 뒤집기 식으로 내 마음을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하게 되니까,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말씀을 통해서 붕어빵 뒤집듯이 뒤집는 겁니다.
하루에 붕어빵을 굽는 장사 아저씨가, 몇 번 붕어빵을 뒤집겠습니까?
그렇게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붕어빵 뒤집기를 통해서, 계속 마음이 세상을 향하려고 할 때마다, 뒤집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붕어빵 뒤집기 말씀을 통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왕 노릇 한다고 그래요, 왕 노릇.
왜 왕 노릇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서 왕 노릇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누구에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 위에 아무도 없는 자가 왕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왕이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 위에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복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뒤집어버리면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게 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위에 올라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인 거예요.
그럼 우리 위에 누구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래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왕입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내 위에는 하나님만이 계시니까.
그럼 내가 인간 세상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왕 노릇하냐?
그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위에 오직 한 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노예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노예로 살면서 상전을 잘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주인 때문에 주인을 잘 모시는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난 뒤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 하셨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사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하늘의 아버지가 주셨다고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적응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뿐, 그 누구도 내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는 위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네가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이다.
왕 노릇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부인한다 그래요, 주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을 따르는 자들은 그 주인이 간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뒤집혀지지 않아요, 교회를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마음이 계속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선 뭐라고 설교가 나오느냐 하면, '세상에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계시고 어쨌든 세상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것이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잘사는 길이고 그것이 안정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모든 하는 일이 다 잘될 것이고, 건강해서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마음을 두

게 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천국 얘기를 합니다.
천국시민 얘기를 하고 소망을 천국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만 주된 역점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남아 있게 방송을 해버립니다.
다 빠져 죽게 만듭니다, 다 빠져 죽게 만들어요.
이렇게 빠져 죽게 만들고, 자기만 빠져 나오는 그런 선장과 선원 같은 목사님과 지도자들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빠져 나온다는 게 뭐에요?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돈을 갖다 쓰고, 교회 이름을 쓰고, 그 교회의 목사라는 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크지요?
세월호의 의미는 교회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붕어빵 뒤집기 말씀!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빠져나오게 하는 붕어빵 뒤집기 말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믿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뒤집어 집니다.
전복돼서 UP SIDE DOWN, 밑이 위로 올라가고 위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향해 가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향해야 됩니다, 그게 주를 믿는 거지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겁니까?
1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디모데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 이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그러니까 디모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붕어빵 뒤집기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빠지도록 뒤집어 놓는 말씀.
이 말씀이 전달되는 파이프라인의 의미 이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에서 중간 통로들에게 또 말씀을 넣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통로들

이 단말기에 도달 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또 말씀을 전할 테니까, 통로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통로가 되기 위해선 어때야 됩니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군인들이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얽매이지 않음이라는 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음, 왜냐하면 얽매이게 되면 마음이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얽매이지 않는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뭐와 같으냐?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잘 뛰고 아무리 잘해도, 규칙을 어기면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쇼트트랙 스케이팅, 규칙을 어기면 1등으로 들어와도 무효가 돼버려요, 은메달 동메달도 못 따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면,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규칙입니다.
생활에 얽매이면 말씀이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마음이 통로가 돼줘야 되는데, 마음이 생활 때문에 막혀 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예배당 건축에 마음이 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 말씀은 막혀 버립니다.
예배당을 잘 짓자고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동시에, 십자가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죽어서 마음이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빠집시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서로 이율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 비유가 뭐가 되냐면, 농부가 제일 먼저 곡식을 얻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 하나의 원칙이 운동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이 지켜야 되는 원칙과도 같은 것이어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삶이, 효과도 의미도 평가도 다 무가 돼버려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농부가 첫 번째 열매를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자꾸 내가 고린도교회라든지 에베소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너도 그러지 말

고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빌립보교회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8절에 바로 이 말씀, 다윗의 씨로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기억하라.
전하라! 왜냐하면 붕어빵 뒤집기 말씀을 알아야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머물면서 잘 먹고 잘살자는 방송만 자꾸 나오게 되면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고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알게 해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지금 선실에 식당에 뭐 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배가 약간 움직이지만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방송해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세상을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지금 자식에게 빠져 있는 엄마한테, 자식에게 빠져 있는 상태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지를 한 번, 주님과 함께 의논해서 의논해 봅시다.
이건 완전히, 세월호의 방송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빠져야 됩니다.
이걸 죽도록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붕어빵 뒤집기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것이 또 요청이 됩니다, 기억을.

기억을 한다는 게 뭐지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골똘히 생각을 하고 빠져들어 갑니다.
이때 우리는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과는 아지랑이같이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해내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이 세상의 일들이 충격적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면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이 세상의 일들 너머에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십자가를 다시 앞으로 끌어내라는 얘기에요.
제1의 관심사로 끄집어 앞으로 끌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문제 때문에 골똘하게 빠져 들어가면 십자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것은, 자식문제 너머로 밀려가고 있는 십자가 사건을, 지금 시급한 사건으로 제일 내가 먼저 반응해야 될 사건으로, 앞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라해 놓고 11절에는 같이 죽으라는 얘기에요. '함께 죽는다'
이 기억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제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로원 복음방송 듣는 사람 중에서,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듣고 아침에 듣고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또 생활의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똘하게 빠져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십자가를 기억해 내는 거예요.
기억해 내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틀 안 듣고, 삼일 안 듣고, 일주일 안 듣잖아요?
십자가가 자꾸 멀어요.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십자가 생활화의 당위성까지도 다 공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건이 돼서 전달되는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되살려 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말씀이 훨씬 강하게 들어옵니다,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말씀은 어차피, 사도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택받은 자들, 택함을 입은 자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 판에 세상에 죽자 그러면, 세상에 대해 죽자는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정말 완전히 정신 나간 거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마음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께로 돌리자고 하는, 허무맹랑해 보이고 뜬 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택한 자들을 가려내려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붕어빵 뒤집기 말씀을 통해, 세상에 빠진 자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해 내고, 또 택함 받은 자로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으면,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붕어빵 뒤집기의 달인이 되어서…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고, 빠져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무엇을 이루고 싶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 어땠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해서 점점 깊어지는 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마다, 그 모든 소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붕어빵 뒤집기를 해갖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천국을 성령님께서 더 많이 실감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버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 구원의 결과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음의 삶을, 붕어빵 뒤집기에 달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붕어빵 뒤집기에 달인들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모든 창세전의 은혜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